

#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김양선\*

## 차례

1. 지식/지성을 젠더화한다는 것
2. 작가-되기와 계몽의 수사학
3. 소비되는 지식, 동원되는 지성
4. 지식의 속류화와 여성 대중의 교양화
5. 아래를 향하는 지식, 기억과 증언의 글쓰기
6.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여성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생산이 접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지성이 학교제도, 매체, 문학 장 등을 통해 구축되는 방식, 여성지성이 담론 장이나 실천의 장에 배치되는 방식, 시대의 의제에 대응하는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대상 시기는 근대 초기부터 1990년대로 한정한다.

먼저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등 제1기 여성작가들은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 ‘여성도 국민이다.’라는 평등주의 이념, 여성지식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자신들이 창간한 잡지나 주도적으로 참여한 잡지를 통해 ‘계몽적 수사학’으로 표출하였다. 근대 초기 여성지식인들의 작가-되기는 스스로를 공적 담론 장 안에서 글쓰기 주체로 주조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위였다.

근대 초기 여성작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계몽의 수사학, 권고와 요구에 기반한 동원의 수사학은 일제 말기에 귀환한다. 1930년대 여성문학 장의 형

\* 한림대 기초교육대학 조교수

성을 주도한 최정희, 모운숙 등은 식민지 시기와 일제 말기 지배담론에 적극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시기와 전후에도 종군작가 혹은 근대화 프로젝트의 수호자로 국가주의 담론에 기꺼이 동원되었고, 여성대중들을 유인하였다.

한편 198·90년대 여성작가들의 ‘증언과 기억으로서의 글쓰기’는 역사와 현실을 젠더적으로 전유하는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서사에서 여성(작가)의 사적 기억은 국민국가 안에서 생산되어 온 공적 기억에 대한 대항기억이자 여성의 역사에 대한 공식적인 망각에 저항하는 대항 기억의 예가 될 수 있다. 신경숙, 공지영, 공선옥, 박완서의 소설은 이같은 증언과 기억으로서의 글쓰기를 실천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작가들은 ‘소비되는 지식’이면서 ‘동원되는 지성’으로서의 부정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하위계층 여성들의 입장에서 재현/대표성을 고수한 작가들도 있었다. 한국 근·현대문학에서 여성작가의 지적 계보를 탐색하는 작업은 이 다양한 정체성들이 충돌하고 때로는 융합하면서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지성’, ‘여성교양’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여성작가, 여성지성, 교양, 소비되는 지식, 동원되는 지성, 증언, 기억

## 1. 지식/지성을 젠더화한다는 것

지식, 그리고 지식인의 문제는 사회 역사적 맥락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사와 지성사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건우에 따르면 서구의 ‘지식인’(intellectual)은 한 사회의 제도적 장의 분화가 어느 정도 공고히 이루어진 다음 출현했던 반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와 동유럽 등 주변부 국가에 존재했던 인텔리겐차는 상류계급이나 중류계급의 다른 교양층과는 구별되는 특정 사회계층으로서 일정한 가치와 태도, 가령 민족에 봉사같은 것을 공동의 사명으로 여겼

다. 다만 지식인(intellectual)이든, 인텔리겐차이든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보급하고, 대중에 대한 계몽적 태도와 사회 문화에 대한 비평 정신을 소유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sup>1)</sup> 한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식인이 근대적 제도교육의 산물이자 지식과 문화의 생산자였다는 점, 대중에 대한 계몽적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이다. 요컨대 지식과 지성의 성격이나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주체의 앞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한 교육, 매체, 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인들이 특정 시대에 어떤 의식을 공유하고 어떤 담론 장 속에서 어떤 담론을 산출했는가는 지식/지성사의 계보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 특히 문학(인)은 근대 지식/지성사에서라도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면서 대중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작가는 문학 장에 고유한 자율성이라는 규범의 이름으로 정치장 속에 개입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만들었다.<sup>2)</sup>

지식의 영역에서 문학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근대 초기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출발한 ‘문인(man of letters)’들은 어떻게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의 경계를 설정하면서 ‘작가(writer, 혹은 장르 개념에 준한 novelist, poet)’ 되기를 실현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인에서 소설가, 시인, 평론가로 분화되어 간 이 문인지식인들이 문학이라는 자율성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모종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독자와 대중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여기서 문학 장과 공적 담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주체의 젠더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1)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지식인에 대한 개념규정은 이 책의 제2장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2) 김건우, 위의 책, 27쪽.

‘대중지성’의 개념을 제시한 천정환은 권력자-남성-지식인만을 당연하고 보편적인 읽의 주체로 상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읽을 소지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곧 주체가 완성되는 과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읽-주체의 문제들이 지식인 남성 중심이었다면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정환에 따르면 비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제자리에 있기를 거부할 때, 제도의 메커니즘을 비켜날 때 대중지성이 탄생한다고 본다.<sup>3)</sup>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문학에서 여성이 읽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맥락, 그 중에서도 여성이 문인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을 계보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성적으로 비존재였던 여성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독자적인 지식/지성을 주조해가는 과정을 살피는 작업이 된다.

지식 형성에 근간이 되는 문해력(literacy)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다. 1930년대에도 한글과 일어를 읽고 쓰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1.9%, 한글 또는 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10.5%에 머물렀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적 여성들의 존재, 그리고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양으로서 독서, 문학, 글쓰기 등을 독려하는 담론은 여성독자들의 증가, 여성작가의 등장을 촉발시킨 동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소수의 여성은 어떻게 작가가 되었나. 그리고 여성작가는 어떤 존재였나. 이와 같은 의문들은 최근의 문학제도연구, 문학 장의 연구, 문화론적 연구의 흥성에 힘입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대 국가의 국민 창출 과정에서 여성 젠더는 통합과 배제의 대상이었고, 여성이 쓰는 소설에는 고유의 사명이 할당되었으며, 여성이 읽는 소설은 여성들의 의무에 적합한지 여부가 항상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성차에 기반한 억압적 담론은

3) 천정환,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 『상허학보』22집, 상허학회, 2008, 168쪽, 179~180쪽.

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339쪽.

여성 자신이 저항의 언어를 쓰도록, 자신의 억압상황을 표현하려는 가능성을 창출하기도 했다.<sup>5)</sup>

한편 우리는 여성작가가 당대에 지녔던 다중적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작가는 그 탄생부터 작가 이전에 당대 주류 담론을 만들어 내는 담론의 생산자였고, 사회저명인사였고, 스캔들과 소문의 진원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희소성’으로 인해 이들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존재성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작가들에게는 작품쓰기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 부여되기도 했다. 이들은 글 쓰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작가로서 존재증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담론 장에 참여할 의무 및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생산 가능성에 착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지성이 학교제도, 매체, 문학 장 등을 통해 구축되는 방식, 여성지성이 담론 장이나 실천의 장에 배치되는 방식, 시대의 의제에 대응하는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대상 시기를 근대 초기부터 1990년대로 한정짓고자 한다.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성(gender)를 대표하고 재현하는 존재로서 고유한 아비투스<sup>6)</sup>를 형성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작가-되기와 계몽의 수사학

여성관련 담론과 글쓰기 주체로서의 여성의 등장은 근대와 매체의 등장과 함께 한다.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독자투고<sup>6)</sup>에서 여성들

5) (히라타 유미, 임경화 옮김),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여류작가의 탄생전야』, 소명출판, 2008, 11~12쪽.

의 글쓰기가 시작되었다면, 『여자계』(1917), 『신여자』(1920), 『신여성』(1923) 등 여성 잡지와 문학매체는 여성들을 당대 담론 장과 문학 장으로 이끌었다. 책 읽는 여성, 문학에 탐닉하는 여성, 글 쓰는 여성과 관련된 담론의 증가와 학교와 출판 미디어 등 제도적 환경 등은 근대 초기 여성-저술가의 형성, 초기 여성문학 장의 위상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과 문학을 연관짓는 담론은 여성에게 근대적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 능력과 독서, 문학감상 등을 강조하면서도 소설(혹은 문학)의 폐해를 지적하는 이율배반적인 담론을 동시에 유포했다. 문학하는 여성에 대한 폄하 및 의도적인 무관심, 삭제는 기존 문학제도가 국민의 발견(1910년대)이든 개인의 발견(1920년대 초)이든 젠더가 기입되지 않은, 그러나 사실은 남성으로 수렴될 수 있는 근대 주체를 정립하는 와중에 여성 글쓰기 주체를 체계적으로 배제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근대 매체는 출발 초기부터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장이기도 하다. 나혜석, 김일엽은 여성 매체의 탄생을 주도한 인물들로서 이들이 애초부터 문학가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지은 것이 아니라 여성해방사상을 주도한 사회사상가 내지 저술가로 출발했으며, 여성해방사상을 실천하는 맥락에서 소설 및 시를 발표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우에도 1906년과 1914년 사이에 여성운동은 깃발, 포스터, 우편엽서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팸플릿, 연설, 선언문, 자서전, 과학에 관한 소논문, 여성참정권을 다룬 소설과 희곡, 탄원서 등을 생산해냈다. 이 시기는 여성이 공적인 삶의 중심으로 진출했던, 많은 여

6)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고전 여성문학연구』8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과정』, 『한국고전연구』14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가 있다.

성개혁가와 행동주의자의 환희, 흥분, 권력의식 등이 증대됐던 때이다.<sup>7)</sup> 이런 변화는 여성이 자신들에게 거부되었던 쓰기와 말하기 양식을 전유함으로써 가능했다. 여성들은 통상 남성의 영역으로 규정되었던 정치적, 계몽적 수사학과 논법을 활용하였다. 이런 정치화된 글쓰기들은 ‘우리’에 반복적으로 호소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를 부각시키고, 독자에게 계몽 이념이나 여성해방이념을 진술하고 권고하고 요구하는 문법적 주체가 된다.<sup>8)</sup> 근대 초기 여성지식인들, 예컨대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등 제1기 여성작가들의 글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제1기 여성작가들은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 ‘여성도 국민이다.’라는 평등주의 이념, 여성지식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자신들이 창간한 잡지나 주도적으로 참여한 잡지를 통해 예의 ‘계몽적 수사학’으로 표출하였다. 이들의 평등주의와 근대적으로 재구조된 현모양처론이 전 국민을 근대국가의 일원으로 포섭하고, 위계화하고, 재배치하려는 근대국가의 젠더화 전략에 따른 결과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성이 자신들의 이념과 욕구를 근대 매체와 계몽적 목소리라는 그간 남성이 점유한 지식 장을 통해 모방함으로써 남성중심의 근대 지식 질서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점<sup>9)</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7)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235쪽.

8) 위의 책, 237쪽.

9) 김복순은 19세기 말 인식주체, 실천주체로서 주체형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인간형이 여성에게서 나왔으며, 이들이 부덕의 개념, 현모양처의 개념을 남성과는 다르게 재배치했다고 말한다. 근대 초기 여성들은 토론회, 독자투고, 토론연설, 상소, 청원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18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신문의 독자투고 중에서 여성들의 독자투고는 남성들이 장악한 매체의 헤게모니에 틈새를 만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중요한 실천행위였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김복순은 ‘페미니즘 파트너십 문화론’을 이와 같은 의미부여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 그에 따르면 페미니즘 파트너십 문화론이란 페미니즘 인식론을 토대로 하고, 여성교양을 핵심자본으로 삼아 새로운 보편성 구성의 파트너십을 창출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구』17집,

서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여성의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은 독자적인 지식 형성과 문학 장 형성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쳤다. 리터러시 능력은 구여성/신여성,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그렇지 못한 여성, 도시/농촌 등 지역과 계층, 교육의 유무에 따라 위계화되었다. 1930년대 한글 또는 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10.5%의 예외적 여성<sup>10)</sup>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양인 독서, 문학, 글쓰기 등을 독려하는 담론은 여성독자들의 증가, 여성작가의 등장을 촉발시킨 동인이 되었다. ‘근대적’으로 지칭된 문학의 향유자가 소수였고, 이들이 1910·20년대에 학교 교육과 매체 등을 통해 받아들인(일본을 경유한) 서구 페미니즘과 근대 문학이 초기 여성문학의 지향점을 결정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성잡지와 종합지, 신문 등 근대 매체는 근대 여성들이 자신의 리터러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이었다.

근대여성문학의 ‘기원’에 해당하는 이 작가들 사이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나혜석과 김일엽은 애초부터 문학가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성해방사상을 주도한 사회사상가 내지 저술가로 출발했으며, 여성해방사상을 실천하는 맥락에서 소설 및 시를 발표했던 반면에, 김명순은 처음부터 ‘현상문예공모’라는 기존 문학 장의 등단제도를 통해 등단했다. 또한 나혜석과 김일엽은 논설, 시평과 같은 계몽적 글쓰기에서 시작했지만, 소설과 시를 통해 전방위적인 글쓰기 실천을 했다. 즉 근대 초기 여성작가들은 논설, 잡감, 시론, 소설, 시, 수필 등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 정론적 글쓰기와 문학적 글쓰기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했다. 따라서 ‘작품 없는 작가생활’이라는 1930년대 남성중심의 문학 장에 의해 형성된 이 여성작가들에 대한 평가는 자신들만의 문학 장을 형성하려는 배타적 의식에서 나온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하다. 또한 나혜석과 김

---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81~212쪽.

10) 천정환, 앞의 책, 339쪽.



일엽의 경우 논설과 시론에서는 페미니스트 의식을 띤 정론적 글쓰기를, 소설과 시에서는 계몽성을 탈각한 문학적 글쓰기를 실천하였다. 나혜석과 김일엽에 비해 사회적 인정투쟁에서 더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김명순은 시종일관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다. 근대 초기 여성지식인들의 작가-되기는 스스로를 공적 담론 장 안에서 글쓰기 주체로 주조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위였다.

### 3. 소비되는 지식, 동원되는 지성

주의자 여성, 붉은 연애의 주인공, 노라, 로자, 작품 없는 사교활동에 골몰하는 여성문인. 근대 초기부터 식민지 시대까지 재현의 정치학에서 지식인 여성은 주로 이렇게 재현되었다. 이와 같은 전형을 창출한 이들은 주로 남성작가 혹은 남성편집자/기자였다. 이들은 지식인 여성들을 민족국가의 시급한 문제에 복무하지 않는 ‘위험한’ 여성,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취급하면서 지적 담론의 장에서 배제했다. 『삼천리』, 『별건곤』, 『개벽』 등의 잡지 편집자가 쓴 여성작가에 대한 스캔들 기사, 염상섭의 초기 장편 『해바라기』,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김동인의 『김연실전』 등 모델소설에서 그려진 여성작가의 모습은 문학 장의 자율성이라는 권위 안에서 여성작가가 소비되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지식인 여성들이 사회주의 이념, 섹슈얼리티, 자기표현의 가능성 등 젠더, 민족, 계급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실천가능성을 모색했다는 표징이 된다. 남성작가들의 여성작가/지식인의 재현과 스스로를 재현하려는 여성작가/지식인의 고투 사이의 갈등은 에세이, 공개장, 서한, 좌담회 등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다.<sup>11)</sup>

11) 김양선, 「여성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공개장과 좌담회를 중심으로」,

한편 식민지 지식인 여성들에게 작가-되기란 대중들에게 연설회, 좌담회, 논설, 에세이 등을 통해 당대 지배담론이나 여성적 이슈를 설파하는 것뿐 아니라 육아, 연애, 결혼 등 미시적 일상까지 자신들이 선취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192·30년대 『신여성』, 『여성』과 같은 여성잡지, 『삼천리』, 『학지광』과 같은 종합잡지에는 여성작가들의 독자상담글, 논설, 에세이, 영화나 책을 보고난 후 감상을 말하는 소위 ‘취향의 좌담회’가 늘어난다. 여성작가라는 희귀성, 일본유학생이거나 이화여전 출신이거나 기자나 교사와 같은 전문적인 직업을 지녔던 이들<sup>12)</sup>은 근대 지식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지식/지성은 당대 매체에 의해 빠른 속도로 소비되었다. 카프문학논쟁이나 민족문학 논쟁 등 민족, 계급과 관련된 핵심적 의제의 장에서 배제된 채 예의 독서와 문학 수업, 연애와 결혼과 같은 일상의 경험들을 드러내는 담론 장을 할당받은 것이다.

하지만 당대 남성중심의 문학 장에서 ‘작품 없는 문단 생활’로 배제되었던 이 여성작가들이 민족과 계급을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성찰성을 추구하려 한 흔적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여성작가들은 자신들을 대표/재현하려는 주류 담론에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했고, 식민지 국가에서 하위주체의 재현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참고.

12) 이화여전, 이화여고보 출신 작가들로는 김원주, 노천명, 모운숙, 이선희, 장덕조, 장정심, 전순희 등이 있다. 신문사나 잡지사 기자 출신 작가로는 김말봉, 김명순, 김오남, 김원주, 김자혜, 노천명, 모운숙, 백신애, 송계월, 이선희, 장덕조, 최정희 등이 있다. 당시 여기자 31명 중 13명이 작가였다고 한다. 김연숙에 따르면 여성작가들이 기자를 하게 된 동기는 매체 글쓰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자생활이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이다. (아래의 글, 102쪽.)

김연숙,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탄생-192,30년대 여기자 집단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를 참고할 것.

민했다. 우리는 그 편린들을 최정희와 송계월 사이에 오간 ‘여인문예가 그룹’ 논쟁<sup>13)</sup>, 강경애의 글쓰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경애의 후기 소설은 ‘빈곤의 여성화’ 양상을 하위주체인 구여성의 체험과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있다. 강경애 후기 소설의 또 다른 특성은 여성지식인의 이중성을 재현한 데 있다. 자전소설인 『원고료 이백원』은 원고료를 둘러싼 남편과의 갈등을 계기로 자기 욕망과 공동체의 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 여성의 내면을 보여준다. 『그 여자』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문예란에서 본 대로 몇 번 장난 비슷이 지어보다가 일약 여류문사가 된 마리아”라는 신여성 재현을 통해 “노동자 농민을 부르짖고 현대 조선 사회상”을 들추어내는 얼치기 마르크스주의자 여성작가의 계급적 한계를 비판한다. 소비되는 지식도, 동원되는 지성도 아닌 이 성찰적 지성에 근거한 글쓰기는 식민지 시기 여성문인지식인의 지식생산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대 초기 여성작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여성공동체에 호소하는 계몽의 수사학, 권고와 요구에 근거한 동원의 수사학은 일제 말기에 다시 귀환한다. 일제 말기 모운숙과 최정희의 연설문은 ‘국가주의에 자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여성은 평등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민족의 식민상황이나 계층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 평등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 문학 장이 ‘여류문인’ 및 ‘여류문학’으로 추인한, 그리고 1930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을 의식적으로 주도한 최정희, 모운숙, 노천명은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를 특화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와 일제 말기 지배담론에 적극 동조했을 뿐만 아

13) 최정희가 ‘여인문예가 그룹’을 결성해야 한다는 제의에 대해 송계월은 ‘계급해방이 먼저이고 여성해방은 그 이후 부차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며 반박하였다.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의 선차성을 따지는 당시 치열했던 카프 문학논쟁의 여성판이라 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쳐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작가의 집단적 정체성을 탐색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라 한국전쟁 시기와 전후에도 종군작가 혹은 근대화 프로젝트의 수호자로 국가주의 담론에 기꺼이 동원되었고, 여성대중들을 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성작가들의 계몽적 글쓰기, 동원의 수사학이 지닌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남성중심의 문단이나 매체가 이들을 히스테릭한 여성, 불안정한 집단으로 묘사함으로써 배제하려는 논리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스스로를 ‘남성성’의 가면으로 위장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첫 번째 가설과 모순이 될지 모르지만 이 남성성의 가면이라는 가설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계몽적 글쓰기는 항상 남성성과 동일한 의미로 범주화되는가, 여성의 글쓰기는 감성적이고,センチ멘털하며 그런 모종의 자질을 통해 전복성을 취한다는 젠더적 독법은 항상 타당한 것이냐. 요컨대 젠더 경계에 기반한 계몽성과 감성성이라는 이분법의 가설을 회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여성작가들이 근대의 진보와 계몽, 혁명과 새로운 질서를 말할 때, 현존하는 남성의 담론을 모방하면서도, 이들과는 다른 ‘대안적이고 여성중심적인 비전’을 제공했는가 여부이다.<sup>14)</sup> 필자는 일제 말기, 한국전쟁기, 개발독재기 여성문학 장의 중심에 있던 여성작가들이 보여줬던 비전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새로움, 혁신, 변화 등을 물신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지배의 논리에 합병된 예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런 무차별적인 비전은 새로움 내부에 있는 다양한 차이들, 아니 어쩌면 근본적인 차이들을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들이 표나게 내세운 전략은 모성성, 여성성과 같은 여성의 역할과 자질을 매개로 한, 일종의 ‘차이를 통한 모방이었다.’ 때문에 젠더화된 지식생산은 지배담론에 포섭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

14) 리타 펠스키, 앞의 책, 241쪽.

여기서 또 다른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근대초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인지식인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 대중을 대표하고 재현해야 한다는 모종의 책임감을 지녔으리라는 가설이다. 하위주체를 대표/재현하려는 여성 지식인들의 의식은 때로는 제국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동원되는 결과를 낳았고, 때로는 하위주체의 삶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 4. 지식의 속류화와 여성 대중의 교양화

전후(戰後) 여성작가들이 공적 담론의 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어떤 의제와 지식을 전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고려할 사안들은 여성들의 등단경로, 전후 문학 장과 여성문학 장에서 이들의 위상, 에세이나 좌담회, 독자상담글 등 전후 종합잡지나 여성잡지에 수록된 여성작가들의 글쓰기이다. 중산층 부르주아 중심의 1960년대 여성문단은 여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그다지 예각화된 담론생산을 하지 못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작가들은 여성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여성교양과 관련된 담론들을 대량 생산하였다. ‘교양’, 그리고 교양과 관련된 담론은 전후, 그리고 1960년대 비등점을 이룬다.<sup>15)</sup> 여성작가들은

---

15) 김복순은 전후 여성지에 배치된 여성교양에 여성 지식의 젠더화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남성 편집자와 필자는 전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은폐하기 위해 여성들에 대한 위치 짓기를 시도하는데, 여성교양의 대상을 여대생, 직장여성, 주부로 계층별, 세대별로 분화시키고, 이들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포섭, 배제, 동원의 전략, 여성교양의 서구화를 구사했다고 규명한다. 이 논의는 여성지식과 여성교양이 전후에 별 차이 없이 쓰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다만 남성젠더가 여성의 교양을 문화적 교양, 예술적 교양, 서구적 교양, 에티켓으로 한정짓는 것이 이미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들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은 좀더 정치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성을 계몽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인식했고, 그 계몽의 내용

전후 문화/문학 중심으로 편재된 여성교양과 지식의 중심에 있었다.

전후 발간된 여성지인 『여원』<sup>16)</sup>을 비롯한 『여상』, 『주부생활』, 『여성동아』 등은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문학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sup>17)</sup> 전후 글쓰기 욕망 및 역량을 지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수가 늘자, 여성잡지는 문화나 교양에 관심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독자를 흡수하면서, 자기 매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문학제도화의 장을 통해 이 여성독자들의 작가되기를 실현시켰다. 여성작가들은 문학론, 작가론, 회고록 등의 글쓰기를 통해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독자들을 교양의 차원에서 흡수했다. 문학은 여성교양의 주요 영역이었고, 여성작가들은 본격적인 문학론이나 작가론보다는 경험과 고백의 ‘가벼운’ 글쓰기 방식을 택함으로써 여성교양의 경계를 설정했다.

또한 여성작가들은 문학작품 외에 시론, 탐방기, 고민해결 상담난 등의 여러 글쓰기를 통해 자기 위상을 확고히 하고 당대 여성들이 지녀야

이 서구화된 소비되는 교양이라면, 계몽의 효과, 제도화의 궁극적 효과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김복순은 여성필자들은 주로 중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자율적, 개인적 시민으로 위치 지으려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한다. 전후 여성작가층, 여성지식의 양상 등이 중산층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은 필자 역시도 공유하는 관점이다.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참고.

16) 1955년 10월 창간되어 1970년 4월 중단된 195·60년대 대표적인 여성종합교양지이다. 신태양사에서 발간한 『여상』과 함께 독자들의 대중적인 호응이 높았으며, 식민지 시기 여성지와는 달리 교양함양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7) 『여원』, 『여성동아』는 각각 여원신인문학상,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 등의 제도를 통해 신춘문예나 문학지 추천 중심의 기존 등단제도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독자문예란을 만들어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영역을 확장했다. 또한 『여원』을 비롯한 전후 여성잡지들은 여성작가군의 확대,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장 확보, 여원신인문학상 제정을 통한 여성작가 발굴, 연재소설을 통한 여성문학의 대중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여성잡지와 여성문학의 공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할 교양이나 지켜야 할 규율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여성작가들이 주도한<sup>18)</sup> 여성잡지의 담론 장은 독자문예, 여류현상문예, 수기현상모집 등을 매개로 독자들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작가로서 다양한 문학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의 글쓰기가 지리적, 계층적, 세대적으로 중층결정된 하위주체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sup>19)</sup> 최정희의 『인간사』, 손장순의 『한국인』,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표류도』 등이 전후 한국사회의 현실을 청년 혹은 여성의 시각에서 집요하게 그리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식인의 입장이라는 서술적 매개를 통해서이다. 전후 여성작가들의 소설에서 부상하는 아프레걸, 자유부인, 양공주, 전쟁미망인 등은 전후 현실의 반영인 동시에 남성적 질서의 균열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 역시 상업성을 동반한 실존주의의 여성적 해석<sup>20)</sup>으로서, 여성 지식의 계급적 속성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만다.

18) 이와 같은 판단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63년 12월 『여원』이 100회 특집으로 조사한 필자통계에 따르면 남성필자 73%, 여성필자 27%이며, 직업별로는 소설가, 교수, 삽화만화가, 시인 순이라고 되어 있다. 남성필자들의 담론의 권위에 의존해 여성교양을 함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하지만 여성필자의 경우 소설가, 시인, 수필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작가가 교양과 지식 형성의 주체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 하위주체의 입장에서 이들을 대표/재현하는 쓰기는 주변부 집단/존재들의 저항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다. 지식인은 하위주체를 위해 말하는 존재라는 시혜적 사고의 한계를 인지하고, 하위주체의 위치성과 모습을 완벽하게 그리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지적 실패지점을 우선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이후 아래로부터의 미학,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를 기획해야 한다. 여성 지식/지성이 (특히 문학의 영역에서) 향해야 할 곳이 여성 하위주체의 대표/재현이라는 것은 비단 전후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 시기 여성지식 담론이 중산층 부르주아에 정향되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 권보드래, 『실존, 자유주의,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35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원, 2008 참고.

## 5. 아래를 향하는 지식, 기억과 증언의 글쓰기

필자는 잠정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계급, 민족, 젠더의 층위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1980년대 이후 지식인 여성의 작가되기 내지 작가성의 권위에 대한 대항담론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판단한다. 석정남의 『불타는 눈물』(일월서각, 1984),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창작과비평, 1984)와 같은 여성노동자 수기들은 문학 장에 진입하지 못한, 그리고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지 않은 글쓰기 주체들에 의해 씌어졌다. 문학 이전의 증언에 가까운 이들의 글쓰기는 계급문학, 노동해방문학의 선도성이 언급되던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여성문학 장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전개된 여성문학비평의 장은 계급, 민족, 젠더 범주 중 어떤 것에 우선성을 둘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그것이 기존 문학 장의 비평담론에 대한 되받아쓰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한계도 노정했다. 소위 비평이 작품을 압도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성노동자들의 수기가 보여준 ‘증언’과 ‘고백’의 성격은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의 특징인 고백과 증언, 기억의 성격을 선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1980년대 여성문학비평의 여러 쟁점들이 실제 글쓰기의 장에서 어떤 효과를 자아냈는지는 1990년대 여성문학을 다시 보는 작업을 통해 명료해질 수 있다. 여성작가들의 ‘증언과 기억으로서의 글쓰기’는 역사와 현실을 젠더적으로 전유하는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서사에서 여성(작가)의 사적 기억은 국민국가 안에서 생산되어 온 공적 기억에 대한 대항기억(countermemory)이자 여성의 역사에 대한 공식적인 망각에 저항하는 대항기억의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차의 페미니즘’을 주장한 로지 브라이도티는 “성차는 여성들 각각의 차이들을 인식”하는 것이고 “남근이성 중심적인 것에 거슬러 사유하며 여성들 자신에게 체현된 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페미니즘의 계보학’이 긴요하다고 말한다. 페미니즘 계보학은 여성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남성중심주의, 국가 중심주의 질서에 한편으로는 포섭되고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여성들의 지적 전통과 말하기, 글쓰기를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1990년대 여성작가들에게도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먼저 1990년대 문학이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환멸의 연대가 시작된 것과 더불어 그 정체성을 심문받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문학은 후일담 문학, 여성작가의 득세, 문학 장을 압도한 여성문학이라는 몇 가지 용어들로 말해져 왔다. 후일담 문학은 1990년대 초반 문학을 압도한 형식이지만, 그것이 지닌 증언과 기억으로서의 특성은 그다지 조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신경숙, 공선옥, 공지영, 김인숙의 소설들은 각각 1970년대 여성노동의 현장,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과 학생운동의 경험을 증언하고 기억하는 글쓰기를 했다. 가령 신경숙의 『외딴 방』은 영등포 여고 산업체 특별학급을 다니던 여공 시절의 그녀들을 기억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작가 ‘나’는 “너는 우리 얘기는 쓰지 않더구나”라는 하계숙의 말에 자극받아 그동안 의도적으로 망각해 왔던 여성노동자로 살았던 한때를 쓰기 시작한다. “글쓰기란, 그런 것인가. 글을 쓰고 있는 이상 어느 시간도 지난 시간이 아닌 것인가. 떠나온 길이 폭포라도 다시 지느러미를 찢기며 그 폭포를 거슬러 돌아오는 언어처럼, 아픈 시간 속을 현재형으로 역류해 흘러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 쓰는 자에겐 맡겨진 것인가.”(『외딴 방』1권, 38~39쪽)이란 진술은 기억을 현재화하는 작업이 신경숙 글쓰기의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글쓰기란 결국 뒤돌아보기 아닌가. 적어도 문학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기억들은 성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속에 흐르는 어제 캐내기 아닌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얼 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1권, 87쪽)

이제 여성작가들은 국가주의의 망령 속에 갇혀있던 과거를 성찰하고, 하위주체인 ‘그녀들’을 ‘캐내는’ 작업을 시작한다. 위 예문에 따르면 그 작업은 “내가 여기에서 무얼 하려고 하는지” 정체성을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공지영은 『인간에 대한 예의』나 『꿈』에서 학생-지식인 신분으로 결국은 실패를 노정했던 노동현장 경험을 기록하였고, 공선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여성의 시각에서 다시 증언하였다. 이처럼 여성작가들은 기억을 서사화함으로써 미시적인 일상 영역에서의 사적인 경험을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려 낸다. 그러면서 공적 기억이 지닌 억압성과 허위성을 폭로한다. 여성노동자, 항쟁의 피해자 등 하위주체 여성들의 말하기와 글쓰기는 계급, 민족, 젠더의 문제가 어떻게 상호 교차하는지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식민 체제나 국가주도의 성장위주 개발정책 속에서 공적 기억의 장이나 남성 지배 담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온 여성의 계보학을 다시 짜는 일은 여성문학을 넘어서 여성문화의 영역으로까지 여성주체의 자리를 매김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억의 성 정치라는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현재를 되비치고 성찰, 분석하는 실천성을 담보한다.

기억과 증언의 글쓰기가 분단과 근대화 등 우리 사회의 의제들을 젠더적으로 재현하는 데 유효하다는 것은 박완서의 일련의 글쓰기에서도 확인된다. 『엄마의 말뚝』 연작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지식인 여성의 주체 형성과정을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갇혀 있던

여성들이 근대화, 전쟁과 같은 공적 사건과 대면하면서 어떻게 성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지를 서술한다. 아래 예문은 작가가 우리 근현대사의 뒤틀린 현장들을 있는 그대로 발언하겠다는 증언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때 문득 막다른 골목에서 쫓긴 도망자가 획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나만 보았다는 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약한 우연이 얹치고 덮쳤던가.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라. 별례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별례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건 앞으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었다.<sup>21)</sup>

자기가 본 것을 가감없이 글자로 재현하는 증언자의 눈은 때로는 물욕과 허명에 들뜬 자본주의 인간 군상들을 향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남아선호사상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제 사회의 작동 방식에 눈을 돌리기도 하며, 1980년대 운동권이 빚은 오류를 직시하기도 한다. ‘증언의 글쓰기’가 자기 가족사의 비극을 증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이곳의 포스트 식민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현실, 중산층의 현실, 분단 현실을 리얼하게 제시하는 데까지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맺음말

위에서 거칠게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작가들은 공적 담론장에 등장한 이래 그 희소성으로 인해 담론 장과 문학 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스캔들

21)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287쪽.

화되면서 배제되었지만 여성젠더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를 다양한 담론 형태로 표출하였다.

여성작가들은 한편으로는 ‘소비되는 지식’이면서 ‘동원되는 지성’으로서의 부정적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 ‘소비되는 지식’은 이들이 근대 이후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생산물, 취향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연애, 결혼, 육아, 모성, 자녀교육, 섹슈얼리티와 같은 일상문화 차원에서의 지식, 영화, 독서, 문학과 같은 취향과 관련된 지식의 전수자로서의 여성작가의 존재는 이들이 근대 매체의 역학관계 속에서 적극 소비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여성지식인의 분화현상이다. 보통학교, 중등학교, 전문학교 등 근대적 학제가 도입되면서, 그리고 식민지 시기 일본유학과 구미유학, 해방 후 미국유학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한 여성과 중등이나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한, 대중적인 지식인 사이의 분화가 여성에게서도 이루어졌으리라는 가설이다. 전자, 즉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의 지적 엘리트로 등극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앎을 종합지, 여성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대중의 교양을 위한 지식으로 변형해 전달했다. 후자의 여성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수받는 데서 한 단계 나아가 대중문화 감상, 독자 문예란 투고 등의 방식을 통해 스스로 여성지식인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이 여성들의 존재가 향후 여성작가들의 세대교체, 광범위한 작가층 형성의 기반이 되었음을 우리는 1960년대 이후 여성작가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여성작가들은 근대문학 장과는 다른 독자적인 여성문학 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당대 지배적인 국가주의 담론, 민족주의 담론에 기꺼이 동원되었다. 대중 혹은 하위주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이고 계몽적인 담론 전파의 변형인 이 동원되는 지성은 특히 근대 국가주의 기획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경계 짓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동원되는 지성의 이면

에 있던 젠더의식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인 여성작가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성의 대표자임을 자임한 작가들도 있지만 하위계층 여성들의 입장에서 재현/대표성을 고수한 작가들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근·현대문학에서 여성작가의 지적 계보를 탐색하는 작업은 이 다양한 정체성들이 충돌하고 때로는 습합하면서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지성’, ‘여성교양’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진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339쪽.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235~241쪽,  
히라타 유미. 임경화 옮김.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여류작가의 탄생이야』,  
소명출판, 2008. 11~12쪽.

### 2. 논문

- 권보드래, 『실존, 자유주의,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35집, 동국대 한국  
문학연구소, 2008. 101~147쪽.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  
구』17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77~223쪽.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18호, 한국여성  
문학학회, 2007. 7~60쪽.  
김양선, 『여성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공개장과 좌담회를 중심으  
로』,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337~364쪽.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여성잡지와 여성문학의 공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61~91쪽.  
김연숙,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탄생-192,30년대 여기자 집단을 중심으로』, 『여  
성문학연구』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89~119쪽.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  
견』, 소명출판, 2004. 299~336쪽.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고전여성문학연구』  
8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67~98쪽.  
천정환,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 『상허학보』22집, 상허학회, 2008.  
155~193쪽.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과정』, 『한국고전  
연구』14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03~130쪽.

Abstract

## The Genealogical Inquiry of Modern Women Writers' Production of Knowledge/Intellect

Kim, Yang-sun

This thesis intends to investigate how the women writers' writings produce the women's intellects. Concretely, this includes the way how women's intellect is made by educational system, media, literary field, and women writers' writings about social issues. The periods are dealt from early modern period, 1900's to 1990's.

First, the women writers in early modern period like Na Heseok, Kim Ilyeob, Kim Mungsoon displayed the necessity of modern education, ideology of equality, role of women intellectuals through 'rhetoric of enlightenment' of their magazines. The being-writer was active practice which made herself as the subject of writing in the field of public discourse.

The rhetoric of enlightenment and mobilization which was invented by women writers in early modern period returned in the latter period of imperial Japan. Choi Jeonghee and Mo Yunsook who were the main characters in women's literature in 1930's were mobilized at the nationalism in Korean war period, post Korean war period as well as in colonial period spontaneously, and their acts influenced to ordinary women.

Third, 'the writing of testimony and memory' of women writers in 1980's had to be re-evaluated in the sense of gendered practice about history and reality. The women's private memories can become the counter-memory about public memory which is produced by masculine nation. Shin Kyungsook, Gong Jiyong, Gong sunok, Park Wanseo experimented those writings of testimony and memory from 1980's to 1990's.

In conclusion, the women writers had the negative identities as 'consumed knowledge' and 'mobilized intellect'. However, there were writers who intended to represent the subaltern women. The exploration of intellectual genealogy about women writers in Korean modern literature must explain the collision and cooperation between multiple identities in male centered society, and their creations of women's intellects.

**Keyword** : Women Writer, Women's Intellect, Culture, Consumed Knowledge, Mobilized Intellect, Testimony, Memory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